

군산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대상 '배달의 명수' 사용 장려·소비자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등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배달 시장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의 명수'가 지난 14일부터 포장 중개 수수료 6.8%까지 부과해 자영업자들은 강한 반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의 명수'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지난 7일과 17일 2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 배달앱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주요 쟁점은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 무료로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점주 처우 개선에만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부담 감소에 치중해 소비자 유치 방안 미흡 △앱 서비스 사용 불편 △관련 홍보 부족 등도 지적했다.

시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수료를 일부라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의 지적을 취한 결과이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배달의 명수'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만족도와 불편 사항 등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배달의 명수'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다.

'배달의 명수' 운영사 역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 최근에 예약하기, 선물하기 등 편의 사항 고도화를 마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보장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흥기 소지한 민원인 발견 후 신속 신고

김대영 청원경찰, 군산경찰서장 표창 수여...시민 안전 공헌 인정받아

22일 군산시청 시장실에서, 공공장소에서 흥기를 소지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군산경찰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행정지원과 소속 김대영 청원경찰은 지난 4월 1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민원인이 흥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지했다.

김대영 청원경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흥기금지' 위반 혐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직후, 시민

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보여준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을 초월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도시계획 도로 현장 방문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은 지난 21일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현장 방문을

시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송학동 일대 교통 환경 개선과 원활한 지역 연결을 위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익산시청 관계 부서와 함께 도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의 진행 상황과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최재현 위원장은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의 기대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군산시가 농촌지역의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과 개체 수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실외 사육견을 대상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5개월령 이상의 실외 사육견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성화 수술 진행 시 미등록 개체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사업 규모인 100마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및 실외 사육하는 소유주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최대 4마리까지 지원 가능하며, 실외 사육견 소유주의 자부담 비용은 한 마당 당 최대 4만 원, 수컷 최대 2만 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동물병원과 일정 협의 후 읍면동별로 출장 또는 소유주가 직접 동물병원을 내원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발로 뛰다'

김영민 부시장, 행안부·해수부·농식품부 등 릴레이 방문...현안 사업 당위성 설명·국비 지원 건의 등

군산시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전략적 협의를 돌입했다.

시는 4월을 '부처 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신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전 부처가 중앙부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 시작으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22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직접 방문해 설득전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면서 부처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부시장 방문에는 사업별 구성된 설명자료와 정책 배경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실무형 설득 전략이 집중적으로 동원됐다.

건의된 주요 사업은 총 7개로, 자연재해 예방부터 친환경 산업기반 구축,



수산업·농업 경쟁력 제고까지 군산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김 부시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태풍 피해 등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미룡지구·개야도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및 RE100 기반 산업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새만금

에너지저장 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가 이어졌다.

수산·농업 분야에선 △개야도 국가 어항 개발사업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전략 작물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사업이 중심을 이뤘다.

특히 김 산업은 군산 수산업의 핵심으로, 가공·유통·수출을 포괄하는 일괄 체계를 갖추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브랜드 육성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작물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구조 개편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당 예산의 반영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와 산업정책의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비 확보를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4대 종교 성지를 걷다... 익산의 특별한 여행길

'성지혜움길, 다리로온 익산여행' 운영... 28일부터 신청

성지를 따라 걸으며 문화 사색을 더하는 익산의 특별한 여행이 올봄 다시 시작된다.

익산시는 봄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성지혜움길, 다리로온 익산여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지혜움길, 다리로온 익산여행'은

2022년부터 운영한 '4대 종교문화체험 다리로온 익산여행'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5월과 6월에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5월은 23~24일, 30~31일에 참여할 수 있고 6월 일정은 6~7일, 13~14일이다.

참여자들은 익산역에서 출발해 △원불교 총부 △미륵사지 △두동교회 △나바위성당 등 익산을 대표하는 4대 종교 성지를 순례한다.

아울러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 체험, 순례길 걷기 등 깊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8일~5월 9일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4만원이다. 신청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www.iksan.go.kr/reserve/index.iksan)에서 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